Economy p/11
도심 속 힐링아파트 어디?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제304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이동국·차두리 축구대표에

남부 물 폭탄…

버스 급류에 휩쓸려

25일 오후 부산·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시간당 1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교 인근 하천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범람한 하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오후 4시께 익사한 여자승객 시신 한구를 발견했다(사진). 부산에서는 지하철역이 침수돼 열차운행이 중단됐고,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경로당이 인근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로 붕괴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윤연주기자·사진/연합뉴스

봇물 터진 개인방송 사이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수입, 억대 연봉 진행자도
다양한 정보 장점…19금 방송 걸러내는 보완 필요

아프리카TV, 팟캐스트, 라이브스타, 팟TV, 버블TV…

그야말로 개인방송 홍수 시대다. 다양한 개인방송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많은 이들이 손쉽게 방송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이젠 누구나 쉽게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방송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방송을 통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진행자(BJ)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BJ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 이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인기 BJ는 전문 직업으로 개인방송을 한다. 실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개인방송 플랫폼의 경우 시청자들이 아이템(별풍선, 캔디, 하트 등)을 구매한 뒤 BJ에게 전달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BJ에게 지급한다.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이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BJ는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일부 유명 BJ는 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방송은 '온라인 스타'가 되기 위한 등용문으로 자리잡았고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가 온라인과 모바일 각각 100만명, 250만명에 달한다. 과거에는 PC를 활용해 방송이 됐다면 최근 BJ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한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길거리, 식당, 공연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현장감 있는 방송을 해 인기다.

시청자들 역시 모바일을 이용해 개인방송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는 2000만건을 돌파했다.

팟캐스트 역시 개인방송 플랫폼의 대표주자다. 아프리카TV, 라이브스타, 팟TV 등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아프리카TV 등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지만 팟캐스트는 미리 BJ가 방송을 녹음한 후 올리면 시청자들은 이를 내려받아 듣고 댓글 등을 통해 소통한다.

이 같은 개인방송은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BJ는 기존 방송과 차별화된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시청자와 소통한다. BJ와 시청자, 시청자와 시청자 간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된다.

개인방송은 다양한 정보나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최근 여러 직업군의 종사자가 BJ로 나서면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배우나 가수 지망생, 모델 등 연예계 종사자들은 개인방송을 통해 팬클럽도 만들어 '스타가 되기 위한' 행보를 걷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개인방송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도 있다. 일명 벗방(여성이 노출을 감행하는 방송), 욕방(BJ가 욕설을 하는 방송), 도박방(각종 도박 중계) 등으로 부정적인 지적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개인방송 플랫폼의 경우 BJ들의 인기 순위 공개에서 벗방, 욕방, 도박방의 BJ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 같은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BJ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9금 방송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제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개인방송이 하나의 미디어로 자리잡기 위해 보완이 시급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로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서울지역 추석 차례 비용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23% 싸다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지역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용품을 구입할 경우 소요비용은 평균 26만2000원이었다. 반면에 마트에서 같은 품목을 구매하면 이보다 7만6000원이 비싼 34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가면 22만1000원에 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 대형유통업체 10곳, 가락시장에서 차례상에 필요한 35개 품목의 구입비용(6~7인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3% 저렴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라 해도 강남·서초·서대문구 시장에서는 평균 28만원이, 강북·노원·영등포구 시장에서는 평균 20만원으로 더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견과(곶감·건대추·생율)를 비롯해 나물(고사리·도라지), 쇠고기, 두부 등은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30~50% 싸다.

마트에서는 물, 소면, 청주 등 공산품을 전통시장보다 10%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

다식과 약과, 산자, 유과 등 제수용 제과는 전통시장에서 평균 1만9000원의 가격대를 보여 유통업체보다 27% 저렴했다.

공사 측은 내달 1일 물가 변동 가능성이 큰 성수품 가격을 비교 조사해 홈페이지(www.garak.c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영모기자 ymse@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전체회의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둘째부터),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 있어야 2차 할 거 아냐"

박 대통령 규제회의 연기 배경 설명… 미흡한 부처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한 것"이라며 "각 관계 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3월 1차 회의 때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부처를 우회적으로 질타하는 동시에 최대한 빨리 규제 혁파 성과를 창출하라는 독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증가 추세인 '해외 직접구매'를 언급하며 "서비스 산업만 해도 규제를 우리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아놨으니 안심'이라는 사이 투자와 소비의 국경이 없는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고 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처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 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를 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구직자 울리지 않는 채용을…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올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반기 실적 호전과 정부의 권고로 하반기 채용 규모가 소폭 상승하면서 취업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돈다. 다만 반복되는 채용 소식을 전하며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다.

요즘 스펙 초월 전형이 공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학점, 영어점수가 아닌 지원자의 포트폴리오와 개성을 보는 스펙 초월 전형은 취지는 좋지만 이 전형 자체가 또다른 스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펙 초월 전형 합격자의 사례로 알려진 오지 여행, 쇼핑몰 운영, 해외 공모전 수상 경력은 물론 훌륭하지만 일반 대학생의 생활 패턴과 괴리가 크다. 스펙 초월 전형 못지 않게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 온 젊은이를 위한 채용 전형 확대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스펙"을 과도하게 묻는 이력서가 사라져야 한다. 취업은 지원자가 하는데 가족 신상을 탈탈 터는 기업들이 있다. 본적, 가족 직업과 직위, 부모님 학벌과 연봉, 거주지 임대차 여부 등 부모님 스펙과 부동산 상태까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많은 지원자들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을' 입장에서 낱낱이 정보를 알려준다. 가족 스펙이 지원자의 업무 능력과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

희망 고문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며 수습이나 인턴 상태에서 값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일부 기업은 서바이벌 오디션처럼 지원자의 일부만 정규직을 보장해준다며 업무 경쟁에 불을 붙인다.

기업의 품격은 영업이익보다 인재 관리에서 드러난다. 인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기업은 그 기업도 소모품처럼 빨리 닳아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렙 AG선수단 격려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오후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선관에서 훈련중인 체조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3자협의체 안돼" vs "거절땐 강력 투쟁"

세월호 정국 분수령 정기국회까지 줄줄이 파행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하고, 이날까지 요구가 거부될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를 재확인해 8월 임시국회의 공전은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파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한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의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 명예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단식 40여 일째 이어가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카톡 글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권순일 대법관 후보 "다운계약서 송구"

●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 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며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수교 이래 한·중 유례없는 발전"

●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달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방문하고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대표는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상호 존중과 호혜원칙 등 선린우호 정신으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큰 발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4대강 조사평가위, 보 안전성 수중조사

●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6일부터 4대강 보의 기초 및 구조물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이포보와 공주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죽산보, 구미보, 달성보, 세종보, 백제보 등 전체 16개 보 가운데 9개다.

송광호 "영장심사 출두하겠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5일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사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 이어 가장 빠르게 날을 잡은 20일 새벽 자진 출두해 마라톤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거듭 밝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황제노역' 다신 못한다

은닉재산 신속 회수 개정안 마련…압수 등 강제집행 가능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지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한 것이 논란이 일자 내려진 사후방책조치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판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 수색 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인을 출석시켜 직접 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법원에서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첫 9시 등굣길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9시에 맞춰 등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9시 등교 정책 시행계획을 각급학교에 배포한 이후 첫 시행이다. /연합뉴스

수능 원서 접수하는 장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첫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한 장병이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3일 실시된다. /연합뉴스

비선라인 '만만회' 정윤회 검찰 조사

산케이신문 보도 참고인 자격…의혹 전면 부인

현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정씨는 바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비선 라인, 박지만 미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행적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illegible]기자

수학여행 갈 때 119대원 동행

안전취약 163개 학교 지원 서울시-교육청 협약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수학여행 때 119 구조·구급대원이 동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만나 '학교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고조된 시민 불안과 관련,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119 구조·구급대원 수학여행 동행 지원, 단위 학교별 재난 안전관리 지원단에 경찰과 소방인력 참여,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기초 안전교육 지원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119 동행 프로그램은 특수학교 등 교육청이 지정한 안전취약 학생 우선 지원 학교 163개교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119 대원이 동행하는 사업이다.

조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책임이 있다"며 "그 출발은 학생 안전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전통 졸업식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에서 열린 '[illegible]' 행사에서 성균관대 무용학과 학생들이 팔일무를 추고 있다. 이날 성균관대는 2305명의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 지급해야

자살한 前부인 모친 일부 승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해 법원이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illegible]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illegible]기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항소심서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illegible]기자

마포 석유비축기지 '랜드마크'로

문화공간 탈바꿈 '땅~시간' 설계안 선정

1970년대 산업 유산인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기존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월부터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한 서울시는 25일 당선작으로 백정열 씨 외 2명이 출품한 '땅(地)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설계는 5개의 탱크를 200석 규모의 공연장·옥외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과도한 설계를 자제하고 지형의 고유성을 최대로 끌어내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우선 첫 번째 탱크와 세 번째 탱크는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안내센터와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탱크가 있던 자리에는 공연장을 만든다. 두 번째 탱크는 장래 계획을 위해 보존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탱크는 유지하되 유리벽 등 시설을 더해 내부의 과거 모습과 외부의 노을·하늘공원 등 현재 숲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개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포석유기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매봉산 자락에 지름 15~38m, 높이 15m의 탱크 5개를 매설하면서 생겼다. 규모(10만1510㎡)가 서울광장의 11배에 이른다. /김보란기자

고척돔구장 2월 개장 어렵다

구일역 확장 시작도 못해 벌써 4차례 연기

국내 최초 돔구장인 서울 서남권 돔구장(이하 고척돔구장) 개장이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고척돔구장 개장은 2010년 말에서 2011년 말, 2014년 9월, 내년 2월로 3차례 늦춰진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구로구는 주변 교통 개선 공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개장을 다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25일 "돔구장 개장을 위한 주변 공사로는 고척교 확장(8→10차로), 안양천로 데크(주차장) 건립, 지하철 1호선 구일역 확장 등이 있다"며 "그러나 코레일에서 나서야 하는 구일역 확장공사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나머지 공사도 내년 2월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태에서 개장하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해 서울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로 개장을 다시 한 번 연기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척돔구장 조감도.

현재 신도림역에서 고척교 구간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돔구장이 개장하면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고척교 확장과 안양천 데크 건립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구일역 확장공사는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에만 공사할 수 있어 내년 2월 완공이 어렵다"며 "2월 개장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프로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될 계획인 고척돔구장은 현재 애초 계획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약 2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김민준기자 mk.m@metroseoul.co.kr

대학홍보의 법칙 저자 김완준씨.

국내 첫 '대학홍보' 책 쓴 방송대 교직원 김완준씨

"대학 홍보 업무를 맡고 관련 서적을 찾아봤는데 책은 없고 학술적인 몇 편의 논문만 있어 답답했다. 또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 간의 인수인계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립 성균관대와 국립 방송통신대에서 10여 년간 일 하다 보니 다양한 노하우와 비법을 발견할 수 있어 그동안의 실패·성공 사례를 함께 정리해 책으로 내게 됐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홍보 전문 서적인 '대학 홍보의 법칙'을 펴낸 한국방송통신대 홍보팀 김완준(42)씨의 말이다.

김씨는 "1980년 대에 시작된 대학 홍보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확대됐다"며 "최근에는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대학 수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늘어나고 있어 대학별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 속에는 휴먼스토리를 통해 신문 1면 톱기사, 모바일 뉴스엔 톱기사, 방송에 노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사 일정과 각종 국경·기념일에 맞춘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작은 아이템 유기, 타 대학과 함께 보도자료 작성하기 등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는 "교직원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끄는데 교직원의 업무나 생활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드물다"며 "이 책은 조금이나마 대학 교직원의 업무, 그 가운데서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홍보 업무에 대해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metro Russia

В Москве поженили двух невест

Трансгендер ЛГБТ пара нашла лазейку в законе и официально вступила в брак

Казусы случаются

metro Brazil

São José. Cratera abre ao lado de trincheira

싱크홀에 주민들 긴급 대피

브라질에서도 싱크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쿠리치바 시 상 주제 두스 피나이스의 아메리카스 대로에는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 구멍이 생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근처의 나바쿠와 도우토르 클라우지누 두스 상투스 코에 사는 주민들은 "갑자기 땅이 진동하며 구멍이 나기 전 어스팔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현재 당국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싱크홀이 발견된 주변의 가옥 8채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metro France

Your Name in Lights : 15 secondes de gloire sur le mur de la Mouna

조폐국 건물에 15초 간 내 이름을!

프랑스 파리조폐국이 건물 벽면을 활용해 할 가장 새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다음달 13일부터 한달간 조폐국 건물 외관엔 'Your Name in Lights' 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캘리포니아 출신 아티스트 존 빌드사리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신청한 사람의 이름이 15초간 벽면에 빛으로 나타나는 특별 이벤트다. 신청을 원할 경우 조폐국 웹사이트의 공고를 확인한 뒤 메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이유를 기입하면 된다.

metro HongKong

핫도그 1001개로 '맛있는 프러포즈'

중국에서 핫도그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한 남성이 화제다.

쓰촨성 청두에 사는 황모씨는 최근 1001개의 핫도그와 하트 풍선으로 바닥에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고 글자를 썼다.

이 상황을 모른 채 친구들을 따라 프러포즈 장소에 온 여자친구 천모씨는 바닥에 가득 놓인 핫도그를 보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때 황모씨가 꽃다발과 반지를 들고 나타나 무릎을 꿇으며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1001일 되는 날이야. 나와 결혼해줄래"라고 말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결혼해! 결혼해!"라고 소리쳤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감격한 천모씨는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황모씨가 핫도그로 프러포즈를 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3년 전 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핫도그 가게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천모씨가 중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알고 보니 둘다 청두 출신으로 얘기도 잘 통했다.

핫도그 가게를 떠날 때 두 사람은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했고 귀국 후 계속 연락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핫도그를 좋아하자 이런 프러포즈를 준비했다. 핫도그 프러포즈 비용은 1만여 위안(약 165만 원)이 들었다.

/정리=조선미기자

결혼식에 순백의 신부가 두 명?

트랜스젠더 여성 호적은 남성···혼인신고 가능 법적으로 부부

러시아 모스크바 구조프스키 혼인청 직원들이 최근 혼인 신고를 하러 온 한 커플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러시아에서 '여성 두 명'이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쌍둥이처럼 꼭 닮은 '알리사'와 '알리나'는 겉으로 보기에 영락없는 여성이다. 하지만 사실 알리나는 호적상으로 드미트리 코쥬로프라는 남성이다.

쿠조프스키 혼인청 관계자는 "트랜스젠더인 알리나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지만 호적상으로 남성이라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알리나에게 남성 예복을 입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혼인청을 찾았다. 알리나는 "호적 정리만 마치지 않았을 뿐 여성인 내가 턱시도를 입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 결혼식에 대한 비난이 매우 거셌다.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게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법적 부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알리나에게 "왜 신랑석에 신부가 서 있냐"며 "정교회 교리에 따라 이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는 이도 적지 않다.

성형수술 지지 단체 회원들은 "특별한 결혼식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알리나를 위해 성형 수술도 선물로 준비했다"며 이들을 응원했다.

알리나는 "주위에서 우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리야 사이노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2060.59 (+4.19)	584.40 (-1.96)
금리	**환율**
2.57 (-0.01)	1020.00 (+2.00)

뉴스&뉴스

가을 전어 한 마리 980원 롯데마트는 26일부터 제철 맞은 가을 전어(마리)를 전 점에서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9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삼성전자, 일하기 좋은 기업

● 삼성전자, SK텔레콤, 신한은행 등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산업계 근무자 6200명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K-GWP)' 조사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2009년 이후 6년 연속, SK텔레콤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2008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유한킴벌리,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현대자동차, LG화학, GS칼텍스, SK하이닉스, 한국3M이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012년 30위에서 올해 9위로 눈에 띄는 순위 상승을 보였다.

외국인 늘자 환전상 급증

●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환전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 수는 1323개로 지난해 말보다 41개나 늘었다.

환전상 수(연말 기준)는 지난 2009년 1424개를 정점으로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외국환 취급기관 전환과 맞물려 2012년 1207개까지 줄고서 연간 66개가 늘어난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책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3
독자센터 02)721-9801
2009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아00054 71000명

현대차·SK·LG 등 하반기 공채 스타트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시작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27일 가장 먼저 취업 지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현대차 그룹은 인문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지원 부문 서류 합격자는 10월 18일과 11월 8일 두차례에 나눠 인적성검사(HMAT)를 치른다. 연구개발 엔지니어 부문에서 일할 이공계 전공자는 10월 9일 HMAT를 실시한다.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서류 지원 마감은 17일. 인적성 검사인 LG 웨이핏테스트(Way Fit Test)는 10월 초로 예정됐다.

SK그룹도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해 다음 달 1~22일 원서접수를 거쳐 10월 19일 인적성검사를 할 계획이다. 효성그룹, 두산그룹 등도 다음 달 1일부터 서류 전형을 시작한다.

삼성그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10월 12일에 한다.

계열사별로 대졸 신입 공채를 하는 한화를 비롯해 금호아시아나그룹,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은 다음 달 중에 신입사원 선발에 나선다. 현대그룹은 10월 초부터 서류접수를 할 계획이며 한진해운은 하반기 중에 공채를 진행한다.

올해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4000~5000명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상·하반기 합쳐 지난해와 비슷한 9000명 정도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전략지원 부문 상시 공채와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규모공채를 통해 하반기 2460명의 대졸 신입 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500명을 뽑은 LG그룹은 하반기에는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SK그룹도 1060명을 채용한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대졸 3000명과 고졸 3400명 등 6400명을 채용키로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대졸 1400명과 고졸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하반기에 1000명을 뽑는다. 이는 수시 채용하는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과 조종사를 포함한 규모다. 대졸자 공채는 9~10월 시작할 예정이지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일반직 200명 규모의 공채를 진행하며 한진해운은 예년과 비슷하게 육상직 30~40명을 뽑을 예정이다.

동부그룹도 상·하반기 합쳐 작년과 비슷한 700명의 대졸 인력을 새로 뽑을 방침이다. 하반기에 350여 명의 대졸자를 선발한다.

/정하균기자 lcs1@metroseoul.co.kr

UHD 셋톱박스 내가 최초 SK브로드밴드와 KT는 25일 각자 자사가 세계 최초로 초고화질(UHD) 셋톱박스를 개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UHD TV를 보유한 가정에서 이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풀 고화질(HD) 대비 4배, 표준화질(SD) 대비 24 선명한 화질로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KT 제공

ARS·SMS 인증으로 본인 확인 '끝'

삼성·신한카드 등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코드 네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매시 ARS인증을 누르면 들리는 소리다.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ARS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에서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에 따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지난 23일부터 카드업계 최초로 대체인증 수단인 ARS 인증방식을 도입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ARS 인증 방식은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는 오는 9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앱카드 결제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앱카드 결제 보안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오는 28일부터 ARS를 통한 본인인증을 시작하기로 했다.

신한카드의 본인인증 ARS의 특징은 외주 개발이 아닌 자체 개발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또한 결제창에 신한카드가 지정한 전화번호를 띄우고, 고객이 직접 휴대폰으로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는 인바운드 방식을 채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은 고객의 스마트폰에 숨어 있는 악성 코드를 통해 착신된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해 인바운드 방식을 채택했다"며 "ARS 외에도 보안성과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되면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현대카드와 하나SK카드, 롯데, BC카드 등 또한 ARS나 SMS인증 수단을 도입해 오는 하반기 중으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alive0103@

체크카드 '대세'

상반기 이용 22.1%↑

정부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의 발급 장수 격차를 1000만장 넘게 벌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1억610만장(국민 1인당 2.1장)으로, 6개월 전보다 400만장이 늘었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는 9371만장(국민 1인당 1.9장)으로 831만장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사상 처음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1억200만장)를 추월한 체크카드(1억340만장)는 6개월 만에 신용카드와의 격차를 1229만장으로 확대했다.

카드 사용 실적은 올해 상반기 중 하루 평균 1조686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1조3830억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6월에는 지난해 동월보다 3.4% 늘었지만, 4월(-1.3%)과 5월([illegible]1.6%) 두 달간은 세월호 참사 이후 뒷걸음질친 영향이 컸다. 반면 체크카드(3030억원)는 22.1%나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액은 일평균 235억원으로 11.1% 늘었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글로벌 스마트머니, 코스피 끌어 올릴까

4주 연속 대규모 유입…북유럽 연기금 주목

전 세계 투자자금이 아시아 시장에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금이 한국 증시에 유입돼 코스피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Asia ex Japan) 펀드로 4주 연속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

이 펀드 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5%로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유럽계 펀드 자금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펀드로 분류·집계되는 펀드 111개 중 92개(82.88%)는 유럽계 펀드가 차지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로존의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유럽계 자금이 아시아 신흥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장세에서 시장의 변곡점마다 발빠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스마트머니가 아시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 눈길을 끈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연기금 운용의 역사가 긴 북유럽 기관 자금의 아시아 유입이 두드러졌다.

세계 3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은 2011년 25.4%였던 선진국 투자비중을 올해 상반기 28%로 수년에 걸쳐 천천히 늘린 반면, 신흥국 주식은 올 들어서만 7.7%에서 8.5%로 급격히 늘렸다.

북해 석유 수익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경우 2012년 말 이후 주식자산에서 선진국 비중이 9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으나 올해 상반기 말에 89.9%로 떨어졌다. 반면 신흥국 비중은 1년새 10%를 넘어섰다.

신흥국 중에서도 브라질·러시아의 비중이 줄고 중국·대만·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아시아 시장이 떠오르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아시아 시장의 저평가 매력과 경제성장 기대감 등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신흥국 주식 보유 상위 5개국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아 정확한 투자 배중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국가별로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패턴을 볼 때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4분기 이후 글로벌 자금 유출입 추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0월 전후로 취약자산군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약자산으로 분류되는 남미, 동유럽과 그렇지 않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나기자 hann@metroseoul.co.kr

세계 금융시장 사이버 공습 주의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전했다.

그렉 메드크래프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의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금융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최근 미국 소매업체 '타깃'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으로 고객 4000만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이베이의 웹사이트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한국의 주요 은행과 방송사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된 것도 특정 국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IOSCO 등 규제·감독 기관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그램으로 각 회사의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seonmi@

국내 은행 동유럽 진출 '러시'

국내 시중은행들이 최근 동유럽으로 눈을 돌리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동유럽 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폴란드 남부의 최대 공업 도시이자 물류중심지인 브로츠와프 지역에 유럽신한은행 폴란드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폴란드 대표사무소 개점으로 국내 은행 최다인 16개국 69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다. 이 사무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유럽신한은행 관계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동유럽 국가의 현지 은행들과 코리아데스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데스크는 현지 은행 점포에 일정 공간을 빌려 한국 고객들의 금융 수요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들은 통상 사무소 개설에 앞서 시장 조사와 경험 등을 목적으로 코리아데스크를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동유럽 시장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신한은행이 지난 6월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 유럽신한은행 폴란드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

우리 축산을 사랑해 주세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축산물·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다양한 축종 인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단법인 본부장 B씨는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집행 잔액 1502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

E씨는 전북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600만원을 타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 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안효준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주영기자 boa@

대기업 근로자 ☺ 중기 근로자 ☹

첫 적용 추석 대체휴일

"9월 10일이 휴일 맞나요."

올해 첫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대부분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 한곳만 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기업, 길게는 엿새 쉬어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가 대체휴일을 적용해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쉰다.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어서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반도체공장 등 일부 사업장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근무수당으로 보상한다.

현대 기아차도 다음 달 10일에 전 직원에 대체휴일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이 직원들은 설과 추석 연휴를 4일로 규정한 임금단체협상에 따라 11일 하루 더 휴가를 가게 돼 주말을 포함해 총 엿새를 쉬게 된다.

LG, SK,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효성, 코오롱, LS그룹 등 다른 주요 기업도 대체휴일 적용에 따라 10일까지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고용 인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 대부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24개 공기업·공공기관 자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14%만 대체휴일 실시

중소기업들은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비율이 10곳 중 한 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6~9일)에 이어 10일을 대체휴일로 적용해 닷새를 쉰다는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했다.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나흘만 쉰다는 중소기업이 66%로 나타났다. 3일간 쉬는 곳도 10%에 달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서는 유급 휴일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에서도 대체휴일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47.9%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75%)보다 27.1%포인트나 적은 수치다.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휴일을 만들어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되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의무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S 아몰레드로 세상을 다시 보다
삼성 갤럭시 탭S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탭S'가 프랑스·영국 소비자 잡지서 잇따라 '최고제품'에 선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탭S', 유럽서 통했다

프랑스·영국 소비자잡지서 '최고제품' 선정

삼성전자 전략 태블릿PC인 '갤럭시탭S'가 프랑스와 영국 소비자 잡지에서 최고 태블릿PC로 선정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탭 S(4G 겸용 모델)는 프랑스 소비자 연맹지 크슈아지르(Que Choisir)의 태블릿PC 평가에서 16.1점을 받으며 '메이외르 슈아(최고의 선택)'에 뽑혔다.

갤럭시탭S 10.5(와이파이 전용 모델)도 15.9점을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가 15.8점으로 3위에 올랐다.

영국 소비자연맹지 위치(Which)도 갤럭시탭S 8.4와 10.5 제품에 각각 79점을 부여하며, 아이패드 에어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갤럭시탭S는 웹브라우징과 쉬운 사용성, 화면, 카메라 성능 등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았다.

앞서 갤럭시탭S는 영국 IT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와 엑스퍼트 리뷰로부터 최고 제품에 선정된 바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한국 근로시간 네덜란드의 1.6배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덜란드 근로자보다 1년 동안 780여 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침·식사 휴식 등의 시간없이 하루 종일 일만한다고 가정해도 무려 한 달이나 근로시간이 긴 셈이다.

2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리스(2037시간)와 칠레(2015시간)도 2000시간이 넘었다.

폴란드(1918시간), 헝가리(1883시간), 에스토니아(1868시간), 이스라엘(1867시간), 터키(1832시간), 아일랜드(1815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788시간, 일본도 1735시간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OECD 주요국 연 평균 근로시간
2013년 기준 단위: 시간

순위	국가	시간
1	멕시코	2,237
2	한국	2,163
3	그리스	2,037
4	칠레	2,015
5	폴란드	1,918
6	헝가리	1,883
7	에스토니아	1,868
8	이스라엘	1,867
9	터키	1,832
10	아일랜드	1,815
11	미국	1,788
	OECD 평균	1,770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합뉴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63.9%에 불과한 1380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일(1388시간), 노르웨이(1408시간), 덴마크(1411시간), 프랑스(1489시간) 등 유럽 선진국의 근로시간이 대체로 적었다.

2000년만 해도 2512시간으로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2246시간으로 줄면서 멕시코(2260시간)에게 1위 자리를 넘겼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길다.

지난해 공휴일이 116일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근로자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다. 네덜란드 근로자가 지난해 한국 근로자와 같은 일수만큼 일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불과 5.5시간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벤츠, 'GLA'로 콤팩트 SUV시장 진출

BMW X1·아우디 Q3와 경쟁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GLA를 25일 선보이며 콤팩트 SUV 시장에 뛰어들었다. GLA는 국내에서 BMW X1, 아우디 Q3와 경쟁하게 된다.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GLA은 콤팩트 SUV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5번째 SUV 모델이자 4번째 콤팩트카 모델이다. 국내에는 GLA 200 CDI 모델과 GLA 45 AMG 4MATIC 등 2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GLA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인 명료함(Sensual Clarity)'을 담았다. 앞모습은 강렬한 윤곽선을 표현하는 보닛 위 파워 돔과 두 줄의 루브르 그릴로 장식됐다. 또한 옆모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근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드로핑 라인(dropping line)과 커다란 루프 스포일러로 포인트를 줬다. 플랫폼을 공유하는 A클래스와 차별하기 위해 그린하우스를 낮추고 벨트라인을 높였으며 커다란 휠 아치를 더했다. 대시보드와 도어 쉘, 도어 손잡이에는 실내등을 내장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됐다.

GLA는 400kg 가량 되는 차체 최대의 73%가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C필러 부분의 강성을 높였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모델인 GLA가 25일 언론에 공개됐다.

GLA 200 CDI는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속도 205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9.9초에 주파한다. 복합 연비는 16.2km/ℓ(1등급), 도심 연비 14.3km/ℓ, 고속도로 연비 19.5km/ℓ이다.

GLA 45 AMG 4MATIC에는 퍼포먼스 중심의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4MATIC이 적용됐다. GLA 45 AMG 4MATIC은 최고출력 360마력, 최대토크 45.9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 속도 250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4.8초에 주파한다.

GLA 45 AMG의 실내

GLA에는 처는 라이트가 장착됐다. 집중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어시스트, 운전자의 긴급한 브레이크 조작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어댑티브 브레이크 기능과 7개의 에어백도 기본 장착됐다. 또한 평행 주차는 물론 직각 자동 주차 기능, 주차 공간에서 차를 자동으로 빼주는 기능까지 추가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적용됐다. 현대모비스와 공조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GLA의 가격은 GLA 200 CDI 모델 4900만원, GLA 45 AMG 4MATIC 모델 7110만원이다. GLA 45 AMG 4MATIC은 연내 공식 판매될 예정이다.

GLA는 BMW X1, 아우디 Q3에 대응하는 벤츠의 반격 카드다. X1은 올해 1~7월 사이에 477대가 팔렸고 Q3는 581대가 판매됐다. X1은 143마력과 184마력, 218마력 등 3가지 종류의 엔진을 갖췄고 Q3는 140마력, 177마력 등 2종류의 엔진이 마련됐다. 이에 비해 GLA는 136마력에 주력하면서 360마력의 AMG 모델로 소수 마니아층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X1은 4420만~6410만원의 가격대에 5가지 모델을 마련했으며 Q3는 4930만~5350만원이다. 이에 비해 GLA는 주력 모델인 200 CDI의 성능이 열세인 데다 가격이 X1보다 비싸다. 따라서 GLA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송학주기자 ferrari@metroseoul.co.kr

105인치 벤더블 TV 봤나요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4에서 105인치 벤더블(bendable) TV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25일 전했다. 벤더블 TV는 평면과 커브드(곡면)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닷형형 제품이다. /삼성전자 제공

추석 상여금 20만원 줄어든다

중기 47% "자금사정 어려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올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20만원이나 줄어든 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90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7.2%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는 업체는 13.7%에 머물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77.7%)를 꼽은 업체가 지난해보다 9.5%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판매대금 회수지연(52.8%)과 납품단가 인하(33.2%)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이번 추석을 보내기 위해 업체당 평균 2억2360만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6470만원(28.9%)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업체는 조사 대상의 61.2%로 지난해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지급할 상여금도 평균 62만2000원으로 지난해(83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 자금으로 21조원을 푼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기관의 추석 자금 지원 실적을 면밀히 점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이동통신 가입자 5600만명 돌파

7월 광대역 LTE-A·성수기 영향…이동3사 5:3:2 변화 주목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30년 만에 5600만명을 돌파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7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600만4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5509만명을 넘어선 뒤 이동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3월과 4월 각각 14만3073명, 1만7699명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본격적인 영업이 재개된 5월 28만7685명, 6월 29만3195명이 늘더니 7월엔 한달새 33만3121명이 증가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30년 만에 56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7월에는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 개시, 여름휴가철 성수기 효과가 반영돼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사진=스정해 기자

5~6월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가 증했다면 7월에는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 개시, 성수기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이 2806만5344명, KT 1689만2495명, LG유플러스 1105만7048명으로 각각 50.1%, 30.2%, 19.7%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KT는 올해 3월 시장점유율 30%선이 무너지며 우려를 낳았으나 다시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30%선을 굳건히 지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에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제재안을 의결함에 따라 8~9월 점유율에 있어서도 KT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다만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앞두고 과거처럼 보조금 살포를 통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막바지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통사 행보가 관건이다.

다음달 선보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애플 '아이폰6' 등 전략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 영향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를 전후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또다시 한 업체가 보조금을 살포한다면 경쟁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만 없다면 5:3:2의 시장점유율 구도에도 변화 조짐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인기 스마트폰의 출시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8~9월 이동통신 가입자 급증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아파트·오피스텔 서비스, 호텔 뺨치네~

예약·세탁·청소 대행은 기본, 조식뷔페까지 제공
최고급 서비스 제공… 높은 분양가 감수해야

최근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호텔 뺨치는 입주민 서비스가 속속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조식뷔페, 방문청소, 비즈니스라운지 등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에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란 호텔에서 투숙객의 일상적인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한다. 트리마제는 거주 단계서부터 호텔급 서비스를 콘셉트로 해 입주민의 교통·호텔 레스토랑 등의 예약을 대행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식뷔페와 세탁, 청소, 발렛, 포터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여기에 5680㎡ 대규모로 들어서는 커뮤니티시설에는 호텔식 조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테리아부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스파,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라운지, 북카페,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이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영등포7가에 짓는 '아크로리버 파크'와 '아크로타워 스퀘어' 역시 호텔 못지않은 시설이 마련됐다.

조식뷔페가 제공될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커뮤니티 이미지.

우선 강남권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지는 '아크로리버 파크'의 경우 스카이라운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하늘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주민라운지, 코인세탁실, AV룸, 음악연습실, 수영장, 남녀 사우나 등이 제공된다.

이어 '아크로타워 스퀘어'에는 동별로 25~29층 사이에 전망대 격의 주민 휴게시설 '프라이빗 스카이가든'이 조성된다. 또 4m 층고의 고급 재료로 마감된 호텔형 로비, 지층부 석재 마감, 커튼월 포인트(일부 동) 등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시장에도 호텔급 서비스 바람이 거세다. 공급 물량 증가로 웬만한 시설로는 임차인의 관심을 받기 어렵고, 이는 저조한 임대수익률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한강건설과 우리도시개발이 강서구 마곡지구 C1-2-5블록에 짓게 될 '마곡 럭스나인'은 조식뷔페, 크리닝, 발렛, 세차 등의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지니스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오토 시스템도 조성한다.

효성은 국내 대표 브랜드 호텔인 호텔신라와 결합한 '구로디지털 효성해링턴 타워'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피트니스센터, 옥상 정원 및 소공원, 무인택배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라 STAY 구로 호텔의 F&B, 미팅룸,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보다 고급화·차별화된 서비스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졌고, 그에 부합하는 상품들이 최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 대부분 분양가 및 관리비 부담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metroseoul.co.kr

도심 속 주요 '힐링' 아파트는 어디?

심신의 치유를 의미하는 '힐링'(healing) 바람이 분양시장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단지 내 또는 인근에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리며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힐링 아파트는 주로 산·강·호수·공원 등을 끼고 있어 집 안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문을 나서면 멀리 가지 않고도 산책과 레저 등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단지 내부도 휴식공간이나 산책로 조성은 물론 텃밭, 캠핑장, 수영장 등 더욱 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해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분양시장 반응도 뜨겁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5월 미사강변도시 A10블록에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는 870가구 모집에 1446명이 신청해 평균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됐다. 이 단지는 그랜드파크를 테마로 조성된 미사강변도시의 정점 위치에 맞춰 테마정원, 단지를 순환하는 산책로, 가든팜, 참살가든, 바이크스테이션 등 다양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GS건설이 9월 공급 예정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조감도.

또 경남기업이 지난 3월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공급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231가구 모집에 757명이 신청해 평균 3.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단지 역시 남쪽으로 자동천(수변공원 예정)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 체육공원도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 힐스가든, 힐링마당 등 다양한 조경 시설을 조성하고 휴게공간은 운동과 산책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동천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와에도 GS건설이 오는 9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공급하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단지 남쪽으로 대규모 근린공원과 망월천이 있다. GS건설이 서울대 연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MOU를 체결한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조경'을 첫 적용한 이 아파트 단지는 바람길, 물, 수목, 토양 등을 이용한 생태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열섬현상을 완화 시키는 조경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캠핑데크, 자이팜, 자이 에코로드, 텔리시안 가든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조경 아이템이 갖춰진다.

실수요로 재편된 주택시장에서 중시되는 것은 주거의 질 향상이다. 그만큼 힐링 아파트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도심에서 천혜자연을 끼고 있고 단지 내 커뮤니티까지 연계된 단지라면 향후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입지 여건과 내부 설계, 프로그램 등이 힐링 아파트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김두탁기자

8월 점포 권리금 연중 최저

노래방-PC방은 상승

서울 점포 권리금이 8월 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수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매업 및 서비스업 점포 권리금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은 25일 올해 서울 소재 점포 797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월 권리금 1억588만원은 전월대비 20.32%(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이전 최저점인 2월의 1억1548만원에 비해서도 8.31%(960만원) 낮은 것이다.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3월(1억4527만원)에 비해서는 27.12%(3939만원)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여러 업종 중에서도 판매업종과 서비스업종 권리금이 이달 들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업종 점포(편의점,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의 8월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2472만원에서 무려 58.87%(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권리금 최저점이던 1월의 9187만원에 비해서도 44.16%(4057만원) 낮은 액수다.

판매업종에 이어 서비스업종 점포(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아트 등) 권리금도 하락했다.

서비스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4786만원으로 이는 전월에 비해 40.33%(3486만원), 이전 최저점인 2월에 비해서는 19.28%(1143만원) 내렸다.

이 밖에 휴게음식업(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1억8350만~1억2530만원(-31.72%), 주류업종은 1억1958만~9049만원(-24.4%), 일반음식업은 1억2732만~1억337만원(-18.81%)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노래방,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점포들은 오히려 평균 권리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1494만원에서 8월 1억2489만원으로 8.66%(99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탁기자

3수생 MS 이번엔 합격할까?

태블릿PC '서피스 프로3' 28일 출시
고급 노트북 사양… 비싼 가격 걸림돌

마이크로소프트(MS)의 '3수'가 이번엔 성공할까.

MS가 태블릿PC '서피스 프로3'를 28일 국내에 출시한다. 전작인 서피스1~2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작'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다.

외신들 역시 MS가 서피스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관련 부서와 인원을 감축 중이라는 보도를 잇따라 하고 있다.

하지만 서피스 프로3의 상품성이 전작과 사뭇 달라 '이번엔 성공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MS가 강조하는 '노트북 그 이상의 태블릿'이란 철학에 맞는 제품이다.

인텔 4세대 코어 i3·i5·i7 프로세서와 4GB·8GB 메모리, 12인치 4:3 비율의 최고급 터치화면을 탑재하는 등 프리미엄 노트북에 버금가는 스펙을 확보했다.

특히 두께 9.1㎜, 무게 800g으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은 이 제품 최대의 미덕이다.

윈도 8.1 프로 OS를 탑재해 데스크톱PC를 쓰듯이 제품을 구동할 수 있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도 쓰던대로 이용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처럼 전용 펜이 장착돼 e메일을 손글씨로 작성해 보낼 수 있고 MS의 메모 프로그램인 원노트 를 펜 클릭으로 실행할 수 있다.

'서피스 프로3'의 전망은 밝다. 지난달 11일부터 진행한 예약판매에서 전작 대비 6배의 실적을 올렸다.

또 BMW, 코카콜라, 루이비통(LVMH) 등 글로벌 기업과 롯데쇼핑 등 국내 기업에서도 이 제품을 업무용 기기로 채택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다. 제품 카테고리를 감안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가장 싼 제품인 i3 4GB·64GB SSD 버전이 90만원대 후반이고 가장 대중적인 i5 4GB 128GB SSD 모델이 110만원대다. 최고 사양 제품은 230만원대다.

최고급 태블릿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패드에 비해 2배가량 비싸다.

서피스 프로3의 최신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감안하면 적절한 가격이라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체감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태블릿이 아닌 고급 노트북과 비교를 해야하는 제품이다.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기"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곰곰IT리뷰 - 후지필름 미러리스 X-T1

DSLR급 사진과 그립감에 밸런스까지…

DSLR이 무거워서 미러리스로 갈아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들고 다니기 편하고 사진도 제법 잘 나오는 미러리스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미러리스를 쓰다보면 몇몇 단점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사진의 퀄리티가 그래도 DSLR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휴대성을 강조한 나머지 바디가 계속 작아지다보니 괜찮은 렌즈를 갈아끼우면 무게의 균형감이 깨져 휴대는 물론 촬영도 쉽지 않다.

이에 후지필름은 미러리스의 유이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러리스 지고는 실락 큰 'X-T1'(사진)을 선보였다.

의형이 남다르다. 이전 필름 카메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제품 상단에 ISO 감도, 셔터속도, 노출 보정 등 각종 다이얼을 배치한 것도 복고풍 디자인을 두드러지게 한다. 번들 렌즈의 경우 조리개 링을 적보해 진짜 필름 카메라의 '손맛'을 전달한다.

기존 미러리스 대비 1.5배가량 크기 때문에 손이 큰 남성 유저가 촬영을 해도 그립감이 우수하다. 한 체급 높은 덩치 덕에 부피가 있는 렌즈를 끼워도 밸런스가 유지된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 APS-C 사이즈 대형 센서, 0.77배율의 세계 최대 배율 뷰파인더, 초당 8연사 트래킹 AF 방진·방습 설계 등 동급 최고의 스펙을 자랑한다.

바디는 물론 렌즈까지 주요 부품을 직접 만드는 몇 안되는 카메라 회사 중 하나가 후지필름이다. 후지 논렌즈와 대형 센서가 뽑아내는 이른 사진은 DSLR 부럽지 않다.

물론 어두운 실내와 같은 미러리스가 태생적으로 취약한 곳에서는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 외의 환경에서는 뛰어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와이파이 기능에 리모트 슈팅 컨트롤을 탑재해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흥미롭다.

X-T1 가격은 바디가 149만9000원, XF18-55mm 렌즈가 포함된 렌즈킷은 199만9000원이다.

/박성훈기자

LG전자 울트라 올레드 TV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모델들이 LG 울트라 올레드 TV를 선보이고 있다. LG 울트라 올레드 TV는 독자적인 WRGB 방식의 울트라HD 해상도로 3300만개의 서브 화소로 생생한 화질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소니 PS 온라인네트워크 해킹

소니의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가 해커 공격으로 접속이 중단됐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25일(한국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소니의 영화·음악·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사이트 소니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SEN)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다운됐다고 전했다.

소니는 이날 성명을 내고 "PSN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증가시켜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공격을 당했다"며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며 회원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킹 공격은 '리저드 스쿼드'라는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추측된다.

/박성훈기자

빠른 길 찾기 말만 하세요

다음 지도 iOS '음성 검색'

애플 아이폰에서도 음성으로 다음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지도 iOS버전에 음성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지도의 음성 검색 기능은 검색하고 싶은 장소나 경로를 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음성인식 엔진인 '뉴톤(NewTone)'을 적용해 완성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찾아준다. 예를들어 '여기서 서울시청 가는 길' 등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원하는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은 지난달 안드로이드 버전에 우선적으로 음성 검색 기능을 적용했다.

/서두원기자 kmlee@

유통업계, '숫자 마케팅' 활발

제품 특성 빠르고 쉽게 전달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사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하면서 그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이런 가운데 숫자를 통해 브랜드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뉴메릭 마케팅'이 유통업계의 주요한 마케팅 활용 기법으로 사랑 받고 있다.

과거 9900원이나 1만원 할인 등을 내걸어 불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뉴메릭 마케팅 기법이 최근엔 제품 전면에 숫자를 내건 '네이밍 마케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원재료의 가짓수나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름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연도 마케팅도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가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품 성분 알려주는 숫자 네이밍

코카콜라사의 주스 음료 브랜드 '미닛메이드'는 뿌리채소 당근과 4가지 과일을 조화롭게 블렌딩하여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신제품 '미닛메이드 5얼라이브(5 alive)'를 출시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신제품은 5가지의 신선한 원재료를 활용해 만든 과채 음료로 뿌리채소 당근과 4가지 과일의 만남을 이름을 통해 알리고 있다.

외식 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피자헛은 신제품의 특징을 위트 있게 표현한 '치즈5케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5가지의 치즈가 자아내는 맛의 하모니를 오케라에 비유해 '5케라'라는 네이밍을 붙였다.

한국야쿠르트는 7가지 유산균이 들어간 '야쿠르트 세븐'을 통해 네이밍 마케팅을 시도했다. 샘표식품이 섬표 양조간장 '501S'는 단백질 함량이 1.5%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숫자를 활용했다.

반면에 코카콜라 '제로'는 칼로리뿐 아니라 탄수화물·당·단백질·지방·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숫자 '제로'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하이트 제로'는 맥주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알코올은 0%인 맥주이다.

◆호기심 자극 숫자 네이밍

63와우크림은 삼화목장에서 이미 네이밍 마케팅으로 큰 효과를 봤던 63도 저온살균우유만을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의미로 63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가져왔다. 아이스크림 업계에 100% 우유 아이스크림이 평준화되어 있다면 '63와우크림'은 프리미엄아이스크림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우유만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초원기자 ccw@metroseoul.co.kr

4명 이용땐 1명은 '공짜'

공항철도 단체할인제… 휴가철 급증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4인 이상 단체할인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직통열차 단체할인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하루 288명으로 전월(6월 19일~7월 19일, 하루 192명)에 비해 50%가 증가했다.

공항철도는 직통열차 및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4인 이상 단체에 대해 1인 8000원의 직통열차 운임(편도기준)을 1인 6000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직통열차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을 논스톱 43분에 운행하며 이용객에겐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출국수속(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출국심사) 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공항철도 측은 "4명이 직통열차를 이용할 경우 1명이 공짜로 타는 셈"이라며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이용객이 몰리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통열차 단체할인승차권은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공항역·공항철도 트래블센터(인천공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구입은 불가하다.

한편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단체할인제 이용이 가장 많은 날은 8월 2일로 하루 388명이 탑승했다.

/박지원기자 jyle@

올해 첫 수확 자연송이 현대백화점은 26일부터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서 강원도 양양, 경상남도 거창에서 올해 처음 수확된 햇 자연송이를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강강술래 "벌초하고 오면 냉면이 공짜"

전통한복 입은 고객도 냉면쿠폰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9일까지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고 매장을 찾은 고객이 결제 시 벌초 성묘 사진을 보여주면 냉면쿠폰(1매)을 무료 증정한다. 같은 기간 전통 한복을 입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냉면쿠폰 1매를 준다.

이와 함께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한우불고기1호(1kg)는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 매장 인기메뉴를 파격가로 선보인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13만원)와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 각 0.7kg-15만원), 한우왕갈비세트1호(3.2kg-18만원)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31일까지는 홈페이지(sulla.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전통무용극 '배비장전'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조선시대 풍자문학의 대표작인 동명의 고전소설을 재창작한 작품으로 무용과 음악, 영상, 미임을 융합한 무용극으로 풀어냈다. 국내 전통극 상설공연 사상 최초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황혜빈기자 hbjung0404@

꽃미남 돈카츠점 '인기'

사보텐, 상반기 우수점포

지속되는 외식업계의 불황에도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쓴 '꽃미남' 청년들이 주목받고 있다.

종합요리식품기업 '아워홈(대표 이승우)'의 프리미엄 돈카츠 브랜드 '사보텐'은 2014년 상반기 우수점포로 서초 교대점과 압구정로데오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보텐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해 매출 성장률과 마케팅 활동, 인력·품질 관리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탁월한 실적을 거둔 두 점포를 선정했다.

교대점은 지난 3월 오픈 이후 매월 20% 가까운 매출 신장률과 도시락 판매사업의 매출 2배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압구정로데오점은 패션 중심지인 상권의 특성을 살려 모델, 배우 지망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연예기획사, 스타일리스트 등과 제휴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두 점포는 30대의 젊은 창업주들이 외식업계의 불황에도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펼쳤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황재용기자

사보텐 교대점의 최선 대표(왼쪽)와 압구정로데오점의 어성빈 대표. /아워홈 제공

제약업계, 인재도 직접 키운다!

여름방학 대학생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임상시험·마케팅 등 다양…해외 연수 혜택까지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도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 인턴십이나 마케터 등 대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은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을 직접 키우기 위해 제약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제약업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임상시험 담당자 양성하는 사노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예비 임상시험 담당자(Clinical Research Associate 이하 CRA)를 양성하기 위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을 개최했다.

국내 연구 개발(R&D) 전문 인력의 조기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본 교육은 국내 임상연구 현황과 관련 법규를 포함해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또 제약사 내 R&D 관련 부서와 임상연구부, 의학부 등 유관 부서의 역할과 협력 사례가 생생하게 소개됐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서 CRA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선배와 진로 상담도 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

식물영양소로 주목받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는 건강을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아이디어 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단은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프로그램의 슬로건인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를 주제로 대중들에게 건강의 가치와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팀별로 ▲마케팅 이벤트 ▲온·오프라인 팀 프로젝트 ▲건강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월별 특별 Fun 개인 미션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온라인 마케팅 및 언론인 특강' 등의 진로 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팀은 다음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COH(Center for Optimal Health) 행사를 취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대웅제약의 기적 만들기 프로젝트

대웅제약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마케팅을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 '미라클 마케터'를 진행 중이다.

미라클 마케터는 이화여대 대학생(SEN이화팀)과 대웅제약 임직원, 아름다운가게 논현점이 함께 협력하는 재능 봉사의 일종이다. SEN이화팀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멘토인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활용해 아름다운가게 논현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기부와 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름다운가게 안내 쿠폰을 제작해 직접 배포했으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률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매 후 태그(Tag)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a택(Give a Tag)'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웅제약은 프로젝트 완료 후 이들에게 대웅제약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프로젝트 활동 인증서 발급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이 실시한 프로젝트 '미라클 마케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 제공

◆약사회, 차세대 리더 육성 아카데미 개최

대한약사회는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팜 영 리더 아카데미(Pharm Young Leader Academy)'를 8월 중순에 개최했다.

전국 35개 약대에서 선발된 5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제약업계 및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하는 다양하면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평소 학생들이 학교에서 듣기 어려운 R&D와 바이오산업과 특허 등 제약산업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다룬 강연과 제약산업의 리더 육성을 위한 특강도 이어졌다.

또 약사회는 참가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2명의 학생에게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에서 개최하는 '노바티스 인터내셔널 바이오 캠프(Novartis International BIO Camp)'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성적이 우수한 10명의 학생들은 일본 오츠카제약에서 연수를 받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노는 물이 다르다!"…제약업계 글로벌 인재 양성 본격 가동

다양한 문화 경험 제공 세계화 역량 강화

제약업계가 글로벌화에 발맞춰 글로벌 인재 양성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아시아는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약대와 '릴리 아시아 인턴십'에 참가할 학생 선발·지원을 위한 글로벌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최근 글로벌 인턴십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일라이 릴리 아시아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현장을 경험했다. 아울러 릴리는 매년 인턴십을 진행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에스프리(Espri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케팅과 영업·관리, 재무, 연구 개발 등 직군별로 개별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은 2년간의 해외 경험과 2년간의 국내 실무 경험 등 총 4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영국 본사 근무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트레이닝을 마치면 글로벌 직책을 받는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대표적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쏘시오그룹 글로벌 인턴십(사진)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 육성은 물론 임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국내의 국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12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3주간 교육을 받았다. 인재 육성 로드맵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파견 예비반과 지역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휴가 후 내게 남은 것은 휴가후유증?

생체리듬 혼란이 원인…규칙적 생활리듬 되찾아야

여름휴가 후 찾아오는 '휴가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은 물론 숙면이 불가능하고 심한 경우에는 설사병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휴가후유증은 대개 생체리듬이 깨져서 생긴다. 피서지에서 밤새도록 놀다가 낮에는 잠을 자는 무절제한 생활이 이어졌거나 해외여행으로 발생한 시차 문제로 생체리듬이 혼란에 빠져 호르몬 체계나 수면 주기 등이 삐거덕거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체리듬이 자연히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빠른 회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생체리듬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수면리듬을 회복해야 한다. 휴가 후 적어도 3~4일간은 자명종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또 비타민은 침체된 신진대사에 활력으로 줄 수 있어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휴가 후 최소 2일 이상 집에 머무르면서 휴가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휴가를 다녀온 뒤 기미나 주근깨 같은 피부병이 생기거나 이미 있던 기미나 주근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으로 탈색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를 위해 하루 7~8잔의 물을 꾸준히 마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아웃도어 '새 얼굴' 눈에 띄네

송일국·이정재·김영광 등 잇따라 등장

본격적인 '아웃도어의 계절'을 앞두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새 얼굴'을 잇따라 발탁했다.

휠라 아웃도어는 삼둥이 아빠 배우 송일국을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

송일국은 현재 KBS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대한 민국 만세 세 쌍둥이를 능숙하게 돌보는 든든한 모습의 아빠로 출연하고 있다. 9월초부터 매장·온라인·지면·옥외 광고 등의 매체에서 새로운 광고를 만날 수 있다.

몽벨은 영화배우 이정재를 선택했다.

몽벨 관계자는 "최근 강렬한 카리스마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이정재의 도시적인 외모와 단단한 근육질 몸매 등으로 몽벨의 멋스러움을 한껏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이정재는 라이트다운과 퍼베디 운재킷만 입고서도 마치 패션 화보를 연상케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배우 김남길을 모델로 기용했던 오프로드는 2014 가을·겨울 시즌부터 패션모델 출신 배우 김영광을 내세울 계획이다.

오프로드는 "어드벤처웨어라는 새로운 영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김영광을 통해 새로운 남성성과 끊임없는 도전의 영역을 표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색' 다른 가을 패션 포인트

여성은 원색 아우터·남성은 컬러 니트로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지난 3월 서울 패션위크 현장. 런웨이를 수놓았던 색상은 다름 아닌 원색이었다. 패션 전문가들은 빨강·노랑·파랑 등 이른바 '신호등 컬러'가 하반기 유행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션 전문점 웰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시즌 화려한 단풍색인 빨강과 노랑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남성에 비해 과감한 시도가 가능한 여성들은 원색의 아우터 하나만 잘 챙기면 된다. 그동안 베이지·네이비 등 기본 색상의 트렌치코트를 고집했다면 올가을에는 레드·블루 컬러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 좀 더 도회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색상은 선명하되 디자인은 심플한 아이템을 고른다. 원색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톤 다운된 머스타드나 다크 레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남성들은 겉옷 대신 스웨터나 셔츠·팬츠 등의 아이템으로 원색 패션에 도전해보는 게 좋다. 특히 스웨터·베스트 등 니트류는 소재 자체가 주는 따뜻한 느낌이 더해져 보다 손쉽게 '가을 훈남'으로 변신할 수 있다.

대신 컬러 팬츠의 경우 원색 그대로보다는 와인·브라운·블루 같은 은은한 색상으로 입는 게 훨씬 멋스럽다. 여기에 팬츠와 타이·스카프 등을 비슷한 톤으로 맞추면 보다 센스 있는 옷차림이 완성된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런웨이 패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인들도 약간의 센스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유행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sow@metroseoul.co.kr

느린마을양조장&펍 첫계천 센터원점 오픈

도심에서 만나는 양조장 배상면주가는 25일 삼개천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 도심 속 양조장 '느린마을 양조장&펍' 3호점을 오픈했다. 이 곳은 갓 빚은 막걸리를 테이크아웃하거나 매장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신개념 양조주점이다. 매장 내 양조시설을 통해 술 빚는 과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상면주가 제공

르네상스 서울 호텔, 보양식 선봬

장어구이·연포탕 등 원기회복에 탁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가을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남성들을 위한 가을 보양식을 1층 한식당 사비루에서 선보인다.

단품메뉴로는 전복·낙지 연포탕과 낙지 돌솥밥을 마련했다. 세트메뉴에는 애피타이저로 영마한의 포도주와 한방 구기자 죽, 토마토와 구운 버섯 샐러드, 국내산 장어구이가 있다. 메인으로는 전지와 낙지연포탕이, 후식으로는 산수유 차가 제공된다.

특히 가을철 대표 보양식인 장어구이의 경우 셰프의 특제소스인 복분자로 맛을 내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인 낙지는 사계절 중 가을에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 쓰러진 소에게 낙지를 먹이면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말까지 전해질 정도로 원기회복에 더할한 음식이다.

가격은 10% 부가세를 포함해 단품요리는 3만9000원, 세트메뉴는 4만5000원이다. 점심은 오후 12시부터 2시30분까지이며 저녁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다. 문의 02)2222-8655(1층 한식당 사비루)

/정혜인기자

비비안 '시크릿 컴포트' 브라 출시

비비안이 심제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크릿 컴포트' 브라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제품은 어깨와 팔을 움직일 때 브래지어 컵 부분이 움직임을 방해한다는 점에 착안,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부직포 원단을 사용했다. 또한 와이어가 직접 가슴에 닿지 않도록 브래지어 컵 바깥쪽에 넣었으며, 컵 하단에는 푹신한 부직포를 덧대 압박감을 최대한 줄였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브래지어 안감으로는 촉감이 부드럽고 습기를 빨리 흡수해 배출하는 테크웨어 원단을 사용했다. 가슴을 감싸는 컵 부분은 깔끔한 몰드컵을 적용해 매끈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색상은 소프트브라운·핫핑크·초코브라운·머스타드 4가지로 구성됐다.

/박지원기자 sow@

'뉴발란스와 함께하는 컬러 런 코리아'

컬러 파우더 속에서 달리는 이색 축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뉴발란스와 함께하는 컬러 런 코리아(The Color Run Korea, 이하 컬러 런)'가 지난 23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업인 IMG(대표 이정한)는 이날 1만2000여명의 참가자가 운집해 이색 달리기 행사를 즐겼다고 25일 밝혔다.

컬러 런은 2012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현재 전세계 44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5㎞ 달리기'를 표방하며 기존의 마라톤과 달리 기록을 측정하지 않는 대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파티를 즐기듯이 달리며 러닝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과천 서울대공원의 6.4㎞ 산책길 코스에서 열렸다. 코스를 따라 매 구간마다 배치된 핑크·오렌지·블루·옐로우 4개의 컬러존에서 옥수수 분말로 제작된 형형색색의 파우더가 폭죽처럼 터지는 가운데 러너들이 달리기를 즐겼다.

방송인 김성원과 이지성이 MC로 행사 진행을 맡았고 애프터 파티에서는 밴드 슈퍼키드의 공연과 여성 댄스그룹인 파나마의 댄스 파티가 이어졌다. 특히 데파이어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폭스바겐·슈퍼추스·CJ·닥터유·프링글스·소프트리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캐릭터가 매력있는 배우될래요"

단아한 미모와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강예솔(31)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무한 긍정녀'다. 2006년 KBS2 '화랑전사마루'로 데뷔한 그는 '자명고', '마이프린세스', '정도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장르와 캐릭터를 골고루 하고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조급함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2012년부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맨스가 필요해 2012'로 젊은 시청자를, 'TV소설 순금의 땅'으로 주부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첫 주연작 '순금의 땅' 시청률 합격점
"조바심보다 깊이 있는 연기 하고싶어"

강·예·솔

◆ 뒤늦게 선택한 연기자의 길

올해 데뷔 8년차인 강예솔은 20대 중반 뒤늦게 연기자의 길을 택했다. 10대부터 체계적으로 학원을 다니며 연기를 준비한 연기자들과 시작부터 달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땐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2, 3학년이 되서 연기를 시작하니 어려웠어요.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보다 부족한 건 당연한거죠.(웃음) 연극은 발성, 호흡도 좋아야 하는데 제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는 영화 이론을 배우며 교사를 꿈꿨어요."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영화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준비하던 그가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연히 찾아온 사건에서 시작됐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드라마 제작사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너무 떨린다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교생 실습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연기를 할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매니저 분을 만나 미스 춘향 선발대회도 나가고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됐죠. 지금은 배우의 길이 운명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웃음)"

◆ 첫 주연 작품 '순금의 땅'

'순금의 땅'은 강예솔의 첫 주연 작품이다. 누구나 자신의 첫 주연 작품을 잊을 수 없는건 당연하지만 그에게 '순금의 땅'은 특별했다. 연기는 물론 카메라 동선, 조명기술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는 "아침드라마는 신인 배우들의 스타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했다. 그런데 8개월간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나이가 많은 편인데 현장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출연진 모두에게 약이 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연진 모두의 노력 덕분일까. '순금의 땅'은 평균 18%대 중반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 1950년대와 1970년대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인삼 사업으로 성공하는 정순금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러나 정순금 역을 떠나보낸 강예솔에게 아쉬움도 따랐다. 그는 "촬영 초반에는 드라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5회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며 "종영을 앞두고 진심으로 순금을 느끼기 시작했다. 항상 순금을 떠나지 못했던 부분이 미안함으로 남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순금이를 연기하면서 나를 돌아봐 봤다.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 있게끔 나를 다듬어준 캐릭터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좀 더 낮은 자세로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배역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워갈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노력파 연기자

강예솔은 2005년 말 한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배우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생각했던 것 만큼 순탄치 않았다. 이듬해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치렀다.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물론 공백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는 "20대에는 연기와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던게 나에게 도움이 됐다"며 "지금은 조바심을 갖기보다 하나의 작품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다가가자는 마음이 커졌다.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하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예솔은 조급함보다 차분하게 배우 인생 제 2막을 그려왔다. 아무런 연줄도 없이 오디션에 찾아가 수십차례 오디션을 보면서 쓰라린 실패도 맛봤다. 하지만 이 같은 실패가 오히려 밑거름이 됐다.

"아쉽게(?) 오디션에 떨어진 작품은 대부분 모니터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합격한 배우의 연기를 분석했죠. 제가 떨어졌다는 점은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웃음)"

이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있는 강예솔은 최근 '복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복싱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니다"며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장기간 촬영을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기 잘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캐릭터가 매력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성준기자 ssw@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 디자인/황윤미

'남녀케미' 인기 넘어선 '동성케미'

의리로 뭉친 '삼총사' vs 여자들의 진한 우정 '마마'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의 성적 궁합을 가리키는 '케미(케미스트리)'가 최근 극중 인물들의 궁합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사진 오른쪽)와 MBC 주말드라마 '마마'(왼쪽)는 이성 간의 케미가 아닌 동성간 의 케미를 앞세워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두 드라마 모두 남녀 간의 로맨스가 존재하지만 각각 남자들의 의리와 여자들의 우정이 볼거리의 핵심이다.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과 소현세자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원작 '삼총사'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인물들이 극을 이끌어간다. 원작 달타냥에 해당되는 박달향(정용화 분)은 바람둥이가 아닌 첫사랑 윤서(서현진)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과에 도전하는 순정파다. 소현세자(이진욱 분) 역시 비운의 세자가 아닌 의협심과 장난기가 넘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박달향의 재능을 알아본 소현세자는 박달향의 첫사랑 윤서가 자신의 아내 강빈임을 알고도 질투심은 커녕 박달향이 무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현세자와 박달향은 강빈을 사이에 둔 연적이 아닌 함께 힘을 합쳐 불의와 싸우며 활약을 펼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소현세자와 함께 자칭 삼총사인 허승포(양동근 분)와 안민서(정해인 분)까지 네 남자의 의리 넘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고돼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마'는 브로맨스(브라더 로맨스의 약자·남성 캐릭터 간에 각별한 우정)에 비해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여자들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마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혼모가 하나 뿐인 아들을 위해 가족을 만들어주려 생부를 찾아간다는 '막장 코드' 드라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엔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된 여자들의 우정이 있다. 한승희(송윤아 분)는 아이의 친부인 문태주(정준호 분)의 아내 서지은(문정희 분)에게 도움을 주며 인연을 시작한다. 문태주의 과거의 여자와 현재의 여자라는 친구가 되기엔 어려운 사이였던 한승희와 문정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간다. 시청자들은 두 여자의 우정에 대해 신선하고 공감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윤아는 "문정희와 썸을 타듯 촬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슈퍼주니어 '마마시타' 티저 영상 공개

멤버들 각기 다른 코믹 캐릭터로 변신

그룹 슈퍼주니어가 '마마시타(아야야)' 티저영상(사진)을 공개, 유쾌한 매력을 선보였다.

슈퍼주니어는 25일 SM타운 공식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규 7집 타이틀곡 '마마시타' 티저 영상을 게재했다. '마마시타'의 티저 영상은 미국 서부극을 연상시키는 배경 속에서 카우보이로 변신한 멤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멤버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분장과 포즈에서부터 개성이 느껴진다.

슈퍼주니어 정규 7집 타이틀곡 '마마시타'는 인도 퍼커션 리듬을 바탕으로 한 드럼 사운드와 DJ리믹스를 연상케 하는 피아노 선율이 인상적인 어반 뉴 잭 스윙 장르의 곡이다. 슈퍼주니어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어 다시 한 번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슈퍼주니어는 오는 29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7집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동시에 같은 날 방송되는 KBS2 '뮤직뱅크'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슈퍼주니어의 정규 7집은 내달 1일 발매된다. /장하은기자 yuw@

'아홉수소년' 캐스팅 비화 공개

유학찬 PD "육성재 얼굴만 보고 선택"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어 케이블 방송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tvN 새 금토드라마 '아홉수소년'의 캐스팅 비화가 공개됐다.

올해 아홉수 남자들의 운수 사나운 로맨스를 담은 '아홉수소년'은 캐스팅 단계부터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한 육성재와 박초롱의 호흡, 그리고 관록의 연기력을 자랑하는 오정세와 유다인 등의 조합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화제가 됐다.

25일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tvN '아홉수소년' 제작발표회에서 유학찬 PD는 "'아홉수소년'은 인디음악이 주요 배경음악으로 쓰이는데 오정세 씨와 나의 MP3 재생목록이 꽤 비슷했다"며 "작품에 쓰이는 음악이 오정세 씨를 캐스팅하는데 한몫했다"고 밝혔다. 극중 오정세와 함께 39세 커플로 등장하는 유다인은 "처음 대본을 받고 작품 자체의 내용보다 오정세 선배와 연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며 "선배에 대한 팬심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29세 커플' 김영광과 경수진은 지난해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이미 한 차례 호흡을 맞춘바 있다. 김영광은 "우리는 나이 뿐만아니라 태어난 곳이 인천으로 똑같다"며 남다른 인연을 자랑했다.

19세 커플 육성재와 박초롱은 같은 소속사 식구다. 육성재는 "4년 전에 회사 연습실에서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 신고 다니던 초롱이 누나와 호흡을 맞추려니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이제 괜찮아 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초롱은 "성재보다 4살이나 많아서 걱정이 있었는데 연기에 몰입할 수 있게끔 성재가 도와주고 있다"며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tvN '아홉수소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오정세, 유다인, 육성재, 박초롱, 경수진, 김영광, 이익준, 최로운(어린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M

유 PD는 "에이핑크가 뜨기 전부터 박초롱을 좋아했다"며 "극중 김말산 여신 한수아 캐릭터는 처음부터 초롱이를 생각하고 만든 캐릭터"라고 고백했다. 이어 "육성재는 '응답하라 1994'에서 쑥쑥이 캐릭터로 나왔을 때부터 잘 생겼다고 생각해 외모만 보고 뽑았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아홉수소년'은 올해로 9세, 19세, 29세, 39세를 맞아 일과 사랑에서 지독한 아홉수를 겪는 한 집안 남자들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김지민기자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유재석·이효리 흥행 부진 지상파 위기

스타MC 의존 벗어나 킬러 콘텐츠로… 토크보다 리얼이 대세

스타MC 유재석과 이효리가 흥행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능은 KBS2 '나는 남자다'와 SBS '매직아이'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2일 '나는 남자다' 시청률은 4.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이하 동일 기준)를 기록했다. 동 시간대 MBC '나 혼자 산다'(6.7%), SBS '웃찾사'(5.1%)에 이어 꼴찌다. '매직아이' 지난 19일 시청률은 4.2%로 경쟁작 KBS2 '우리동네 예체능'(5.9%)보다 낮다. 첫 방송 후 한 차례 4%를 넘겼던 걸 제외하면 매회 시청률 3%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MC에 의존하는 구성, 리얼이 대세인 예능 트렌드, 킬러 콘텐츠의 부재가 부진 원인으로 꼽힌다.

두 프로그램은 유재석·이효리를 영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남자다' 속 유재석은 알맹이 없는 상태다. 그가 국민MC 반열에 오르기까지에는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의 착한 진행을 뒷받침한 박명수·하하 등의 존재가 있었다. 이야기 있는 예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자다'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권오중뿐이다. 실상가상으로 권오중의 15금 발언은 지상파 수위 조절을 이유로 편집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매직아이'는 이효리의 스타성 때문에 게스트·방송 주제가 보이지 않는다. 방송은 스마트폰 폭력, 길펌 분노 같은 독특한 주제를 이어가는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프로그램 화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 후 대중의 관심은 "이효리 분로그", 이효리 오원물림 … 이효리 멘탈붕 에 맞춰져 있다. 이는 주제 토크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토크보다는 리얼이 대세인 예능 트렌드도 부진 원인이다. 유재석이 출연하는 MBC '무한도전' 23일 시청률은 11.1%로 동 시간대 1위. 육아 예능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24일 시청률은 15.5%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9주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들의 추억 팔이나 수다보다는 그들의 사생활과 계꿀을 보며 몰입하는 편이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진행자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결과로 지상파 예능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MC를 닦기보단 "킬러 콘텐츠 부재를 고민하는 편이 옳다"는 의견이다. JTBC '비정상회담', '히든싱어', 엠넷 '쇼미더머니' 같은 종편·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예능보다 온라인상에서 더 주목 받고 있다.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주제가 명확하고 흥미도 있는 콘텐츠 연구가 지상파에 필요한 시점이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KBS2 '나는 남자다'

SBS '매직아이' 홍진경(왼쪽)·문소리·이효리

박재범 2집 트랙리스트 공개

사이먼디·그레이·로코 등 최강 래퍼 군단 총출동

가수 박재범의 정규 2집 '에볼루션' 트랙리스트가 공개됐다.

25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박재범이 내달 1일 정규 2집 앨범을 발표한다"며 "'에볼루션'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뮤지션 박재범의 모습을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속사는 타이틀곡 '소 굿'을 비롯한 전체 수록곡의 트랙리스트와 함께 트랙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앨범에는 타이틀곡 '소 굿'을 비롯해 모두 17곡이 수록된다. 박재범이 전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고 음반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 굿'은 뮤지션 자자말론과 박재범이 함께 작업한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신곡들을 비롯해 '좋아…', '다시 만나줘…', '엘리' 등 기존 발표곡의 리마스터링 버전도 수록됐다.

지난 16~17일 중국 상하이와 청두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한 박재범은 오는 30~31일에는 베이징과 광저우에서도 투어 공연을 연다. 이어 내달 2일 서울에서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정성훈기자

씨스타 앨범에 아티스트 대거 참여

씨스타(사진)의 스페셜 앨범 '스위트 앤 사워'가 베일을 벗었다.

씨스타는 26일 스페셜 앨범 '스위트 앤 사워'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하이 스웨어'로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스페셜 앨범에 참여한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들을 공개했다. 하우스룰즈, 글렌체크, 리노 등 실력파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들은 씨스타의 히트곡을 리믹스 트랙으로 재탄생시켰다.

소속사에 따르면 타이틀곡인 '하이 스웨어'는 러빙 유를 작곡한 이단옆차기와 염관의얼굴들아 의기투합한 하우스 기반의 댄스곡이다.

한편 씨스타의 스페셜 앨범 '스위트 앤 사워'는 26일 정오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장성은기자 psw@

5년 만에 앨범 '노래하는 윤도현' 발표

다양한 뮤지션 참여… 신선한 조합 예고

YB의 보컬 윤도현(사진)이 5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디컴퍼니는 "윤도현이 9월16일 솔로 미니앨범 '노래하는 윤도현'을 발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앨범의 정식 발매에 앞서 이달 28일에는 선공개곡 '요즘 내 모습'을 선보인다.

윤도현이 솔로 음악으로만 채운 앨범을 정식 발매하는 것은 2009년 미니앨범 '하모니' 이후 5년 만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노래하는 윤도현'은 어쿠스틱 기타가 중심이 되는 앨범으로 그동안의 YB의 강렬한 음악과는 다른 느낌의 새로운 윤도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앨범에 참여해 신선한 조합이 이뤄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성은기자

판타지로 위안 전하는 대중영화

동화적 감성이 인상적… 현실적인 울림은 없어

film review

■ 두근두근 내 인생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열일곱 대수(강동원)와 미라(송혜교)는 남들보다 빨리 한 아이의 부모가 됐다. 그러나 대수와 미라의 아들이자 이름처럼 아름답게 태어난 아름이(조성목)는 남들보다 빨리 늙는 희귀병으로 인해 열일곱 나이를 앞둔 지금 신체 나이 여든 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은 너무 일찍 꿈을 포기해야 했던 부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삶과 작별을 준비해야 하는 아들의 이야기다.

영화는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겼다. 원작은 미려한 문체와 따뜻한 정서가 녹아든 작품이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동화 같은 감성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만 세대의 문제나 늙어감에 대한 고찰과 같은 현실적인 지점이 없는 점은 아쉬웠다.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중저림 와 닿지 않았던 이유다.

영화의 첫 인상도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채화 풍의 그림으로 구성된 오프닝, 파란하늘을 유유히 떠가는 빨간 풍선, 싱그러운 초록빛이 도드라지는 대수와 미라의 과거 장면 등 영화는 소설이 지닌 동화적 감성을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철부지 아빠와 당찬 엄마, 그리고 의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묻는 담담한 아들의 모습에서는 슬픔에 빠지지 않고 삶을 긍정하려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신파이지만 섣불리 슬픔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은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영화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지점에서의 큰 울림은 전하지 못한다.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소재에서 이상할 만한 인생에 대한 통찰은 '두근두근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어느 가족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익숙한 가족애이다. 극적인 사건 없이 진행되는 스토리도 영화를 조금은 단조롭게 만든다.

강동원, 송혜교는 영화 속에서 최선의 연기를 펼쳐 보인다. 그러나 연기와는 별개로 두 사람의 캐스팅에는 의문이 남는다. 택시기사와 세탁공장 직원이라는 노동자 부부 역할에 대한민국 대표 선남선녀인 강동원, 송혜교를 캐스팅했다는 점에서 '두근두근 내 인생'은 애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생각이 없었던 것일지 모른다. 물론 현실에서 벗어나 잠깐 동안의 위안을 전하는 것은 대중영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다만 '두근두근 내 인생'은 지나치게 그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느낌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9월 3일 개봉.

고아성·박성웅 '오피스' 조우

배우 고아성(사진 왼쪽), 박성웅(오른쪽)이 영화 '오피스'에 캐스팅됐다.

'오피스'는 일가족 살인사건에서 시작해 회사로 퍼져나가는 의문의 연쇄 살인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회사라는 일상적인 공간과 소재로 스릴러의 긴장감을 만들어낸 작품이다.

고아성은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는 인턴 이미례 역을 맡았다. 이전과 다른 강렬한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박성웅은 연쇄 살인사건을 쫓는 광역수사대 형사 종훈을 연기한다. 냉철함 속에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오피스'는 '추격자' '작전' '황해' '내가 살인범이다' 등의 각색을 담당했던 홍원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오는 9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정의호기자

공유 '용의자' 30일 日 방문

개봉 전 팬들과 특별 시사회

배우 공유(사진)가 영화 '용의자'로 일본 팬들을 만난다.

공유는 오는 30일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블루 시어터에서 열린 팬클럽을 위해 진행되는 '용의자' 시사회에 참석한다. '용의자'의 한국 개봉 이후 시사회를 위한 첫 해외 방문이다.

이번 시사회는 다음달 13일 일본 정식 개봉을 앞두고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사전에 당첨된 팬 1800명이 참석한다. 공유는 영화 상영 이후 팬들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용의자'는 공유의 첫 액션 도전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개봉해 41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지난 1월 북미 개봉을 시작으로 2월에는 홍콩에서, 5월에는 대만에서 개봉했다. 유럽, 인도,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지역에서도 개봉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유는 전도연과 함께 주연을 맡은 '멋진 악몽'과 '남과 여' 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 /정의호기자

드라마 '왕의 얼굴', 영화 '관상' 표절 논란

'관상' 제작사 "독창적 창작 요소 모방" 주장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최근 드라마 '왕의 얼굴'의 편성을 확정한 KBS와 제작사 KBS 미디어를 상대로 제작·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5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주피터필름은 KBS와 KBS 미디어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관상'은 2010년 12월부터 영화 제작과 함께 소설, 드라마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제작 및 편성을 위해 2012년 공동제작사 파트너로 KBS미디어와 접촉했다. 협의 과정에서 '관상'의 시나리오와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줬고 KBS미디어는 드라마를 집필할 작가로 이향희 작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왕의 얼굴'의 제작진이 당시 드라마 '관상'을 기획하며 거론됐던 팀 그대로 구성됐다.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은 '왕의 얼굴'에 담긴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을 '관상'과의 유사점으로 지적했다.

끝으로 주피터필름은 "방송 드라마에 있어 타사가 사용한 소재와 동일·유사한 소재는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자 오래된 관행"이라며 "공영방송인 KBS와 그 자회사인 KBS미디어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오른 광해가 관상을 무기로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다. 오는 11월 방영 예정으로 캐스팅 중이다. /정의호기자

'노장의 힘' 이동국-차두리 대표팀 승선

축구협회, GK 정성룡 제외… 임채민·한교원 첫 발탁

'라이언킹' 이동국(전북·사진 오른쪽)과 '차미네이터' 차두리(서울·왼쪽)가 오는 9월 축구 A매치에 나서는 국가대표 최종 명단에 발탁됐다.

25일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9월 5일 베네수엘라, 8일 우루과이와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손흥민, 구자철 등 해외파 14명을 먼저 공개한 데 이어 K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내파 8명을 추가로 발탁해 최종 명단을 완성했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는 단연 이동국과 차두리 등 노장 선수들이다. 이동국은 지난해 6월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뽑혔다.

현재 A매치 99경기에 출전한 이동국은 이번 두 차례 평가전 가운데 한 경기만 출전해도 A매치 100경기 출전을 기록하게 돼 '센추리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이동국은 19세이던 1998년 5월 16일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에 데뷔했고, 오는 9월 평가전에 발탁되면서 16년 4개월간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되는 대기록도 작성했다. 이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플레이어로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골키퍼를 포함한 국가대표 최장기록은 1994년 3월 5일 미국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고 2010년 8월 11일 나이지리아전을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이운재(16년 5개월)가 가지고 있다.

더불어 만 34세인 이동국이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면 역대 최고령 A매치 득점랭킹 4위에 오르게 된다.

현재 국내 A매치 최고령 득점랭킹은 김용식(39세 286일), 정국진(37세 132일), 정남식(37세 67일), 우상권(34세 170일) 등이다.

측면 수비수 차두리의 발탁도 팬들의 관심거리다.

차두리가 출전한 마지막 A매치는 2년 9개월 전인 2011년 11월 레바논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이다. 차두리는 지난 3월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제외된 바 있다.

국내파 스트라이커로는 이근호(상주)가 이동국과 호흡을 맞추게 된 가운데 김주영(서울), 이용(울산), 임채민(성남) 등이 차두리와 함께 수비진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 또 전북의 공격수 한교원도 합류했다. 임채민과 한교원은 첫 대표팀 발탁이다.

또 김승규(울산)가 올림픽 대표팀에 뽑히면서 관심을 모은 골키퍼에는 정성룡(수원)이 제외되고 이범영(부산)이 발탁됐다.

한편 유럽파 선수는 손흥민,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구자철(마인츠)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일본에서 뛰는 김민우(사간 도스),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 3명이 합류하고, 중동에서 활약하는 남태희(레퀴야), 조영철, 한국영(이상 카타르SC), 곽태휘(알 힐랄), 이명주 등 5명이 선택을 받았다.

이밖에 김영권(광저우 헝다), 박종우(광저우 부리) 등 2명은 중국리그 소속이다.

/장병호기자 yaa@metroseoul.co.kr

'지메시' 지소연 1골 2도움 활약

첼시 영국 여자축구 선두 도약 이끌어

'지메시' 지소연(23·사진)이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의 선두 도약을 이끌었다.

지소연은 25일 영국 서리 스테인스어폰테임스의 스테인스타운에서 열린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 버밍엄시티 레이디스와의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며 활약했다.

지소연의 활약에 힘입어 첼시는 버밍엄시티를 3-1로 물리쳤다. 첼시는 승점 20을 기록, 버밍엄시티(승점 17)를 끌어내리고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지소연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1골 2도움보다 팀이 이기고 리그 1위까지 되니 기분이 정말 좋다"며 "이제 리그 4경기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한 경기 한 경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가뤄했다.

/장병호기자

류현진 순조로운 재활…27일 불펜피칭

구체적인 등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27·사진)이 순조로운 재활 단계를 밟고 있다. 류현진은 오른쪽 엉덩이 중둔근과 이상근 염좌로 지난 15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25일(이하 한국시간) MLB닷컴에 따르면 LA 다저스는 류현진의 재활 과정에 따라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27일 부상 후 처음으로 불펜피칭을 할 예정"이라며 "재활 과정이 순조롭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최근 마운드 위에서 캐치볼로 부상 부위를 점검한 류현진은 27일 애리조나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실전처럼 힘을 줘 던지는 불펜피칭에 나선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매팅리는 "불펜피칭 후 어떤 과정을 이어갈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14일 선발 등판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엉덩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강판했다. 정밀검사 결과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염좌가 발견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장병호기자

유소연 LPGA 2년 만에 정상

최나연·박인비도 나란히 2·3위에

프로골퍼 유소연(24·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2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다.

나흘 연속 선두를 달린 유소연은 23언더파 265타를 쳐 2위인 최나연을 2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과 상금 33만7500 달러(약 3억4000만원)를 차지했다. 2012년 8월 제이미파 톨리도 클래식 이후 2년 만의 우승이자 2011년 US여자 오픈을 포함한 개인 통산 LPGA 투어 세 번째 우승이다.

유소연은 우승을 차지한 뒤 "마지막으로 우승한 2012년 이후 경기 자체는 좋아졌지만 우승까지 못해 고민이 많았다"며 "골프에 자신이 있으니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스스로 믿었다. 오늘을 계기로 자신감이 생겼고 긴장감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세계 랭킹 9위인 유소연은 이번 우승으로 5위로 도약할 전망이다. 유소연의 우승 스코어인 23언더파는 박인비가 지난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세운 시즌 최다 언더파 스코어와 타이 기록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최나연은 21언더파 267타로 2위를 차지했으며 박인비는 18언더파 270타로 3위에 올랐다. 3년 연속 우승을 노렸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4타를 잃고 공동 55위(1언더파 287타)에 오르는데 그쳤다.

/장병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광주

한화	400	002	012	9
KIA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